

“사교육비 절감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부모 教育



지난 24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부모 教育'에서 과천 문원중학교 지성환 교장이 참가한 학부모들에게 '학력수준에 맞춘 수준별 教育'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부모 教育'을 여성회관에서 지난 23일과 24일 관내 초·중·고 학부모 3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사교육비를 경감시킴으로써 학교 教育의 경쟁력을 높이고, 초·중등 教育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教育은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으로 포천교육청이 주최했다. 포천교육청은 23일 한국교육정보원 추교영 장학사를 초청해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을, 24일에는 과천 문원중학교 지성환 교장을 초빙해 '학력수준에 맞춘 수준별 教育'에 대한 강

의를 실시했다. 학부모 教育에 참가한 포천중고 박현석 학생의 학부모 장영숙씨는 "사교육비 절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참여했다"며 "학교에서도 특기반 등을 만들어 教育을 하고 있지만 대입이 다가오면 사교육을 시켜야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송우초 김아람학생의 학부모 염명례씨는 "현재 아이에게 教育을 4군데 보내고 있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며 "이번 教育을 통해 학원교육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이겠다"고 밝혔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1318 우리를 말한다 2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사회제도가 만들어낸 웃지못할 사건”



정 한 성
동남고등학교 총학생회장

“골든벨에 3번 출전하게 되었는데 한번은 개인자격으로, 또 한번은 학교출연으로, 세 번째는 왕중왕전에 출전에 최후 4인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동남고등학교 총학생회장 정한성(사.18)군이 골든벨과 맺게 된 사연을 설명한다. 고려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토요일 이라서 동남고 보이스코우트 자격으로 자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정 군을 교강실에서 만났다. 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공약한 학생회실 마련은 학교여건상 추진하지 못했고 축제기간에 자체수익사업을 실시하여 모은 돈 32만원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 군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졌고 삼국지는 만화책부터 시작해 소설책,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는 3~4회 이상 읽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 책에 대해 정 군은 “울타리를 크게 치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울타리를 좁게 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 일탈을 유도하는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와 사회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지만 밖에

서는 탈선학생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 군은 동남고등학교에 대해 동남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동남고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중학교 졸업할 당시 의정부로 나가라는 권유를 물리칠 수 있었고 지금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동남고의 교육시스템인 심화반에 잘 적응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드디어 그 첫 번째 목표인 대학입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슬럼프에 빠졌을 때 친구처럼 어려움을 함께 해준 동남고 선생님들은 다정다감하여 학생들의 고충을 잘 받아 주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정 군은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낸 웃지 못할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수능시험이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행위라며 윤리의식의 부재에서 나오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한다. 정 군은 고등학교 시절을 '억눌린 시절'로 표현했다. 억눌린 시절이라 함은 규제에 억눌린 학생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억눌린 시절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요소가 40%라면 부정적인 요소는 60%라고 못박는다.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 조대형 동남고등학교 교장은 “오늘 이

렇게 정 군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나의 주장이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과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정 군은 부모님에 대해 해사라도 더욱 노력을 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무엇이든 지원해주셨으며 사춘기 방황 때에도 잔잔한 애정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한다. 정 군은 앞으로 참된 지도자가 되어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해사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종운 동남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정 군에게 “균형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번 세운 목표는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담당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준 정 군은 포천사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복기자 best114@paran.com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12)

점 등 식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만큼만 살겠습니다”

으뜸경기학생대상선행상 수상



포천중고 이승규 학생

경기도 교육청이 주최한 제 4회 ' 으뜸 경기학생 대상 '에 포천종합 고등학교 (교장 이광호)의 이승규(1년)군이 선행분야 수상자로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포천중고 1학년 승규군은 “수돗가에서 발견한 지갑을 지내던 선생님께 드렸던 것뿐인데...”라며 “뜻밖의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다”고 밝혔다.

승규군의 담임 백지희 선생은 “승규가 학교에서 방송반 기기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매사에 임하고 있다”며 “같은 반의 장애우 학생을 항상 도우며 소외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진정한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수상은 승규군이 최근 학교에서 현금 15만 6천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 준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승규군은 “평소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독거노인을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해 청소와 설거지 등을 도운 게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다”며 부모님께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항상 성실히 사는 것이 목표라는 승규군은 “지금까지 했던 것만큼만 살겠다”며 다짐을 하고 미래의 컴퓨터사업가를 꿈꾸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날이 어둡어질수록 무렵, 동네 방앗간에서는 시루떡이 몇 시루나 오고, 막걸리 지점 집에선 온 막걸리 통도 열 통 좁은 되어 보입니다. 제사날이나 볼 수 있는 과일이며 육촌, 그리고 통퉁어와 패지 대가리도 보입니다. 오늘 낮에는 어른들이 큰 패지를 잡았답니다.

단상아래서 마을 이장이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박정희 대통령과 혁명을 같이한 오치성 각하가 오셨다며 박수와 환호성이 우뢰 같습다. 오치성은 불록 벽화로 감자기 만든 단상에 올라 말을 시작합니다.

“에, 이번에 저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서 저는 오늘과 같이 기쁜 이날, 이 동네에 전기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오치성의 말에 어른들은 ‘울소!’를 연발합니다.

이어 사회자인 이장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치성 각하께서 스위치를 올리겠습니까?”

스위치가 올라가자 전기줄로 열 개나 이어 놓은 육십 촉 백열등이 별천지를 만들었습니다. 광명전지란 이를 두고 한 말인가 봐요?

“이 갑갑한 밤을 대낮처럼 밝히다니?” 모두를 탄복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줄을 서라고 하네요, 사과 반쪽과 돼지고기 몇 점, 소금 찌꺼, 딱 한 조각씩을 시멘트 포대 속지로 만든 봉지에 담아 나누어 줍니다. 줄을 두 번씩 서다 퇴짜를 맞은 아이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길에 나서 보

면은 언제나 비를 들고 정다운 인사 길에서도 틀에서도 한결 같아요, 정다운 그 이름 새마을 아가씨...”

“취미 부인 행차요”라는 주제가에 “취미부인과 새마을 운동을 볼 꺼라, 전기세 많이 나온다, 볼 꺼!”를 연발하십니다.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자 우리 동네는 그야말로 문명의 세계에 차츰 물들어 갑니다.

우리 바로 아랫집인 제환네 큰 집은 라디오를 샀습니다. “엄마, 검은 십자가 할 시에요, 라디오 들으러 가요.”

날이 어둡기 전에 저녁밥을 먹고 나면, 매일 저녁 엄마를 불러 라디오를 들으러 가자고 합니다. 라디오의 뉴스에서는 ‘검은 구월단’이라는 단체가 각 나라를 돌아다니며 테러를 한다고 무서워합니다. ‘검은 십자가’라는 연속극은 북한의 공작원이 남한을 침투하는 반공사상 고취의 취지를 담은 드라마로 인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분도 잠시 뿐입니다. (계속)



김 순 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초·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

제10회 포천교육장배 겸 제8회 협회장기



지난 20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초·중·고 태권도대회에서 선수들이 품새를 겨루고 있다.

중학교 실내체육관(은행관)에서 개최했다. 겨루기 34개교 374명, 품새 24개교 360명 등 총800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마련된 이번 대회는 초·중·고 남녀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태권도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치러졌다.

경기도 포천교육청과 포천시태권도협회회는 제10회 포천교육장배 겸 제8회 협회장기 초·중·고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20일 포천

여 예전보다 기량이 소폭 상승했다”면서 “하지만 여자부 선수들의 저변확대가 보다 절실한 대회였다”고 밝혔다.

- 대회결과는 ▶남자초등부 ▶1위 선단초등학교(선단체육관) ▶2위 내촌초등학교(내촌체육관) ▶3위 송우초등학교(한국체육관) ▶여자초등부 ▶1위 송우초등학교(한국체육관) ▶2위 선단초등학교(예일체육관) ▶3위 추산초등학교(홍익체육관) ▶남자중등부 ▶1위 갈월중학교 ▶2위 동남중학교 A ▶3위 동남중학교 B ▶여자중등부 ▶1위 갈월중학교 ▶2위 동남중학교 ▶3위 포천여자중학교 ▶남자고등부 ▶1위 일동종합고등학교 ▶2위 동남고등학교 ▶포천종합고등학교.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고속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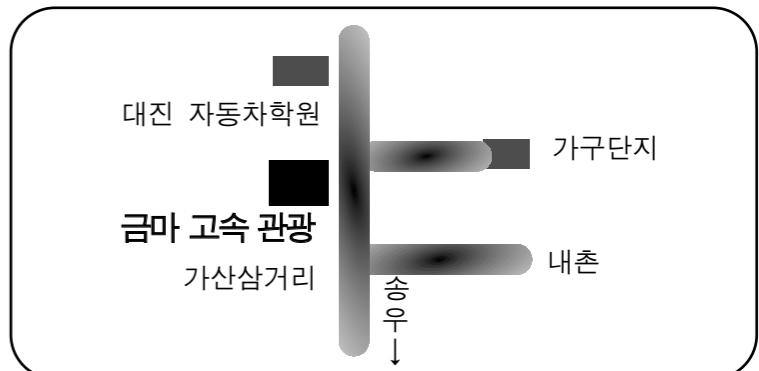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효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

예약문의 : 031) 544-8888

대표이사 : 이복용